



일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

최 원 선임연구원

- 보험전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에이엠베스트(A.M. Best)가 일본 보험회사의 5년간 재무건전성을 BCAR로 평가한 결과,¹⁾ 일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저성장, 저금리, 저출산, 그리고 지급여력 건전성 규제 강화 등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일본 보험회사들의 위험 관리 및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이 확대됨.
 - 일본 금융청은 2012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정성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「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」을 개정한 바 있음.
 - BCAR(Best's Capital Adequacy Ratio)란 조정잉여금(adjusted surplus)을 순요구자본금액(net required capital)으로 나눈 비율로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인 RBC비율 개념과 유사함.
 - 조정잉여금은 RBC비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의 개념이며, 순요구자본금액은 요구자본의 개념과 유사함.
- 일본 보험회사들은 상품포트폴리오, 자산운용, 해외진출 등을 통해 가용자본을 확충하거나 요구자본을 관리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있음.
 - 이하에서는 일본 보험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무건전성을 개선시켰는지를 살펴봄.
-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하이브리드 채권발행과 채권투자를 통해 가용자본을 늘리고 보험상품 및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킴.
 - 생명보험회사는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가용자본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킴.
 - 하이브리드 채권의 경우 일정 수준의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가용자본으로 인정됨.

1) A.M. Best(2015. 12), "Japanese Insurers' Balance Sheet Strength Improves with a Focus on Risk Exposure", <http://www.ambest.com>.

- 생명보험회사의 매도가능 채권투자 비중 확대는 금리하락 시 채권평가이익 증가로 연결되고 가용 자본이 늘어남.
 -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상품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요구자본을 관리함.
 - 상품포트폴리오 조정은 종신 및 정기보험(사망담보) 판매를 확대하고 금리위험이 큰 금리확정형 양로 및 연금보험 판매를 축소하는 것임.
 - 장기 국·공채 비중 확대는 장기부채를 많이 보유한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·부채종합관리(ALM)를 용이하게 하고 요구자본 축소에 기여함.
- **일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언더라이팅 강화 및 채권매매이익 증가로 인한 가용자본 확대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됨.**
- 언더라이팅 강화를 통한 손해율 관리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저금리로 인한 채권매매이익이 확대되어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증가함.
 -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언더라이팅 강화에 집중하였으며,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되고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음.
- **최근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보험회사들의 경우, 단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나 중·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.**
- 일본 보험회사들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과 대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해외진출 전략을 취하고 있음.
 - 해외영업 확대는 즉각적으로 해외영업과 관련한 위험(환위험, 지분보유위험 등)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요구자본 증가가 불가피함.
 - 그러나 중·장기적으로는 해외진출이 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실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하고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될 경우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증가할 것임.
- **현재까지는 일본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,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국·공채 비중이 커서 국·공채 금리 변화로 인한 위험이 크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.**
- 위기 발생으로 인한 국·공채 금리 급등은 자산 가치를 감소시켜 가용자본이 줄어들 수 있음. **kiri**